

합동 전화

로카디파파와 카스텔간돌포, 2018 년 9 월 15 일

“구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하기”

1. 시작인사

2. 카스텔간돌포 마리아폴리 센터와의 연결

3. 아일랜드 -프란체스코 교황님과 가정들의 만남

더블린의 수잔 케이틀과의 전화 연결.

4. 브라질 - “빵 아가씨들”

포콜라레의 한 그룹의 젊은 ‘빵 아가씨들’이 (브라질) 지네타 마리아폴리 소도시 앞의 길거리에서 빵을 팔기위해 임시변통으로 제과점을 연 것은 1988 년이었다. 30 년 후 ‘황금 이삭’은 품질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도 하지만 인류애와 사랑도 나눈다.

5. 인도- 홍수 후의 케랄라 공동체

6. 앙골라 - “작은 불꽃” 학교

아이들을 위한 작은 식당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이후에 문맹퇴치 수업이 생겨 그 지역의 여러 젊은 교사들이 일자리를 찾았으며, 새가정 운동의 도움으로 태어난 “작은 불꽃” 학교는 여러 사람이 도움이 인간적이고 사회적인 발전과 성장을 가져온다는 가시적인 표시이다.

7. 미국 - 인디애나주, 게리 - 도시를 색칠합시다

(인디애나 주)의 게리는 미국의 가장 가난한 도시 중의 하나인데, 6 개 주의 청소년들이 그 지역 사회 활동 단체와 함께 노숙자들을 위한 배식, 도시 재배갈 작업에 함께 했다. 여러 명에게 잊지 못할 그 경험은 다른이들의 필요에 눈을 뜨게도 했지만, 무엇보다도 그 도시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보게 한 것이다.

8. 멕시코 - 함께 나누고,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기

Dopo il forte sisma del settembre 2017 년 9 월의 강한 지진 후에 멕시코의 “엘 디아만테” 소도시의 젊은이들 한 그룹이 거의 완전히 파괴된 콘틀라 시의 재건을 돕기 위해 갔다. 첫 충격을 넘어 작업을 시작했지만, 무엇보다도 지역민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파괴할 수 없는 관계를 건설했다.

9. 동 아프리카 지역- 평화를 위한 스포츠

1000 명 이상의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케냐, 수단 남부와 부룬디에서 10 월 말에 한 “평화를 위한 스포츠”활동에 참여 했다. 스포츠가 평화와 사회적 장벽을 극복하는 도구가 되었다.

10. 콜롬비아 - 모두를 위한 경제: 개발을 위한 다각화

한 사제의 나눔의 행위가 불안정한 커피 재배를 '모든 이를 위한'에서 영감을 ACEDECO PADEVI 기업으로 변화시켰다. 환경을 존중한 다각적 생산의 선택이 일자리 창출과 발전을 가져왔다.

11. 끼아라 루빅: 구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하기

무슬림 친구 모임에서 한 끼아라 루빅의 "이웃에 대한 사랑" 담화에서 - 카스텔간돌포, 2002년 11월 1일.

12. 카스텔간돌포에서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의 인사

13. 결론

1. 시작 인사

어거스틴 스타인벡: 안녕하세요! 합동전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파트리치아 레이바: 우리는 로카디파파의 사업회 총본부에 있습니다.

어거스틴: 우리와 첫 연결을 갖는 모든 분들께 특별한 인사를 드립니다!

파트리치아: Ciao 어거스틴, hola!

어거스틴: Hola 파트리치아! 잘 지냈어요?

파트리치아: 잘 지냈어요!

어거스틴: 우리 소개해야지요?

파트리치아: 네, 우리는 아르헨티나 사람이고, 저는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왔는데 이탈리아 그로타페라타 포콜라레에 있어요.

어거스틴: 나는 부에노스아이레스 근교의 'General Lamadrid' 출신인데, 지금은 쿠바의 포콜라레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리치아, 이 시간에 우리는 뭘 하지요?

파트리치아: 이 시간에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에게 보내 준 스토리들을 보여 주면서 세계 여행을 할 텐데, 우리가 현지인들을 만나러 가서 준비한 것도 있어요. 활동, 프로젝트들에 대해 얘기할 텐데 고통스러운 소식들도 있는데, 이는, 마지막에 끼아라의 얘기를 통해서도 듣겠지만, 우리 가족들이 사랑으로 답하고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늘 그랬듯이 여러분의 느낌, 제안, 사진 등을 자막에서 보듯이

이메일 - collegamentoch@focolare.org, 왓츠: +39 320 419 7109 혹은 페이스북: CollegamentoCH으로 보내 실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 우리는 마닐라에서 있었던 젠 페스트를 마치고 이 곳 로카디파파로 되돌아 왔습니다.

(음악 - 마닐라 젠페스트 영상)

아주 예외적인 경험이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천 여명의 젊은이들이 타가이카이에서 젠페스트 후속 행사를 가졌고, 신학생들의 모임도 있었습니다. 작업과 '모든 이를 위한 경제'와 환경, 장벽과 인종 차별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에 대한 '워크 슝' 그리고 삶에 대한 결정을 내린 날들이었습니다.

파트리치아: 그리고 쿠바, 엘살바도르, 베네수엘라 등 전 세계에서 여러 젠 페스트가 열리고 있고, 지난 목요일에는 탄자니아의 신기다에서 시작되었는데 젠들이 짧은 비디오 인사를 보내 주었습니다.

남자 젠: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는 주교님과 지역 위원과 함께 우리 젠 페스트를 시작했어요.

모두: Ciao!

남자 젠: 우리는 모든 '국경을 넘어가고자' 해요.

모두: 모든 국경을 넘어! Ciao!

파트리치아: 젠들 고마워요, 여러분과 함께 해요. 최고의 젠 페스트가 되기 바랍니다!

2. 카스텔간돌포 마리아폴리센터와의 연결

파트리치아: 어거스틴, 어쩌서 우리만 여기 있지요? 다른 합동전화 때는 여기에 항상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어거스틴: 맞아요. 지금은 모두가 카스텔간돌포 마리아폴리 센터에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엔리코가 있을 텐데, 엔리코 거기 있어요?

엔리코: 네, 여기 있어요. 카스텔간돌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인사 드립니다. (박수)

나는 이태리 사람 엔리코 입니다. 베르가모에서 태어났지만 여러 해 동안 미국에 살고 있고, 워싱턴 시에서 왔습니다. 하지만 내가 여기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200명 정도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전 세계 지역 대표들의 두 모임 중 첫 모임에 참석하고 있는데, 왜 들인지는 나중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년 이 모임을 하지만 올 해는 한 가지 새로운 것이 있는데, 여러 지역에서 단지 지역 대표들 만 로마로 온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운동의 여러 대표들과 함께 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먼 곳에서 온 사람부터 시작합니다. 오스트렐리아, 뉴질랜드와 오세아니아의 여러 나라입니다. 여기 있군요! (박수) 이제 아시아로 옮겨 갑시다. 인도, 타일랜드, 한국, 일본 등 많은 참가자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박수) 마지막으로 북 아메리카와 남 아메리카 지역으로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리고 계속 내려가서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페루, 칠레, 브라질 그리고 아르헨티나 까지 이르는데, 여기 있습니다! (박수)

당연히 이 곳 카스텔리 로마니 지역에서와서 우리를 맞아주었고 함께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엠마우스와 헤수스 그리고 이 곳에 상주하는 모두에게 인사 드리겠습니다. (박수)

그 외에도 오늘 우리와 함께, 루터교 세계 연맹회장이셨던 독일 루터교 크리스찬 클라우스 주교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여기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요즘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임에 대해 한 두 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얘기했듯이 올 해는 두 모임이 될 텐데, 두 번째 모임은 유럽, 중동, 그리고 아프리카의 여러 지역이 약 2주후에 모임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이 모임을 하나요? 이 기간 동안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지 조금 얘기합시다. 여기에 안지가 있는데, 안지 먼저 자기 소개 좀 해 주세요.

안지: 저는 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인이고, 변방으로 가기 위해 막 포콜라레를 연, 남 서 쪽의 한 도시에서 왔어요.

엔리코: 우리가 요사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주겠어요? 이 모임은 어떤 모임이고, 어떤 것들을 나눕니까?

안지: 교회와 젊은이들과의 경험과 도전들, 잘 되어가지 않는 것들, 전망 등을 함께 나눕니다.

엔리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마크가 있는데, 어디서 왔고, 뭘 하세요?

마크: 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왔고, 기혼자이고 티비 영화 제작 일을 합니다.

엔리코: 이 기간 중의 경험담과 또 어떻게 되어가는지 좀 얘기해 주세요.

마크: 형제애의 멋진 경험이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신발”을 착용해보려고 노력하는데, 도전들, 상황들 등 상대방의 모든 것을 깊이 알고, 깊은 관계를 맺는 환상적인 경험입니다! 이는 유엔이 되어야 할 그리고 될 수 있는 바입니다. (웃음)

엔리코: 유엔 같다는 말이지요! Grazie.

이상입니다. 어거스틴, 파트리치아 마이크를 여러분에게 넘기고, 나중에 다시 봅시다.
Grazie.

파트리치아: 카스텔간돌포의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3. 아일랜드 –프란체스코 교황님과 가정들의 만남

파트리치아: 전 세계에서 있었던 여러 사건들 중에서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있었던 교황님과 세계 가정 모임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영상을 보겠습니다.

(음악)

파트리치아: 보시는 바와 같이 교황님과 함께 한 가정들의 모임은 하나의 축제였습니다.
(노래)

우리 운동의 여러 사람이 최 전방에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등 여러 방법으로 기여했습니다. 몸바이의 한 가족입니다.

더블린과 전화 연결 중인데, 수잔 케이블 연결 됐나요?

수잔 케이블: 네, 연결됐어요. 아일랜드에서 모든 분께 인사 드려요!

파트리치아: 안녕하세요, 수잔! 이 모임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얘기 좀 해주겠어요? 막 후에는 어떤 일이 있었나요?

수잔: 놀라운 경험이었어요! 이 모임은 아일랜드의 우리 모두가 교회와 함께 일년 반 이상 일해 온 것의 절정이었어요. 사목 대회와 그 이후의 교황님과의 모든 모임에 우리는 늘 함께했어요. 우리 운동의 주교, 가정, 전문가 등 많은 이가 말을 하거나 경험담을 얘기했어요. 우리는 자원봉사를 했었고, 우리 악단이 노래도 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아름다웠던 것은, 더블린 주교좌 성당에서 저녁 행사로 지구를 위한 초교파 모임을 가졌는데, 서로 다른 7 개의 교파 지도자가 함께 한 것이에요. 예전에는 한 번도 없었던 일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순례자들의 환대를 위해 마리아 폴리스 센터를 제공했는데, 루마니아의 그리스 가톨릭 교회의 신도 40 명이 그들의 주교와 함께 왔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동시에 또한 어려운 순간이었음을 고백하는데, 대중 매체들이 성직자 미성년자 성추행에 집중했기 때문에 최근 20 년 사이에 교회를 격감시킨 상처를 다시 열어 제쳤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교황님께서 미사 중에 용서를 청하신 것은 한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미래에도 큰 희망을 주었고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었어요.

파트리치아: 수잔 그리고 함께 일해 준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 드립니다.

수잔: Grazie!

4. 브라질 - “빵 아가씨들”

어거스틴: 지금 우리가 알아 보게 될 것은, 브라질의 지네타 마리아폴리 소도시의 “황금 이삭” 베이커리인데, 모든 것이 30년전에 “빵 아가씨들”이라고 불리던 한 그룹의 아가씨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드리아나 발레 (in italiano): 나는 아침 4 시 반에서 5 시 사이에 일어나서 전기 불, 오븐, 기계들을 켜고 시작하기 위해 제과점에 오는데, 그 후에 직원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하루가 시작돼요. (음악)

첫 번째로는 여기서 “프랑스 빵”이라고 부르는 단순한 빵부터 준비해서 오븐에서 굽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간식, 짭짤하고, 달콤한 빵들 그리고 부족한 빵들을 만듭니다. 이 일은 외부 주문에 달려 있기 때문에 큰 유연성을 필요로 해요. (음악)

저는 이태리 베르가모 출신이고 브라질에 온지 38 년 되었어요. 전통 호텔, 레스토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기 '황금이삭'에서 만든 반죽으로 라자냐, 그레고리네, 네 가지 치즈 빵 등 이탈리아 요리법을 소개했는데, 대 성공이었어요. (음악)

1988 년에 모든 것이 시작되었어요. 상파울루에는 포콜라레 운동 센터가 있는데 일년 중 일정 기간을 지내기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왔는데, 과일과 채소 제배와 원예 외에는 아무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 한 명이 "나는 집에서 빵 만드는걸 배웠는데, 엄마가 내게 가르쳐주었다."고 했고, 다른 사람은 "나는 비스킷을 만들 줄 아는데, 우리 부역의 오븐에서 구워서 팔러 가면 어떨겠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팔 수 있을까?" 물었지요. 그 당시 우리 센터 지역이 조금씩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상파울루에서 45 km 떨어진 녹지대여서 빌라, 아파트를 짓기 시작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있었어요.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비닐 봉지에 싼 빵을 바구니에 넣고 길가에 나가서 직접 팔았어요. 첫 일요일에는 여섯, 일곱 대의 차가 멈춰 서서 사가서 100 레알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우리에게는 굉장한 것이었어요. (음악)

처음에 3 개월을 하고 나서, 이제 그만하자고 했어요. 젊은이들이 하던 활동이다 보니 자본도 없고 벌어도 시원찮았지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지 않았던 첫 일요일에 두 세대의 차가 센터로 들어와서, 빵 파는 아가씨들이 어디 있는지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중 한 명이 계속하자고 했어요. (음악)

루치아 토시 (마리암) (in portoghese): 지네타는 거기를 지나다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원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네타의 격려 때문에도 이 일을 시작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 것은 단지 판매 만이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마리아폴리 센터를 알리는 좋은 기회였어요! (음악)

아드리아나 발레 (in italiano): 나는 벤치만 활용하지 않고 카트, 판잣집도 활용하고, 피자도 소개하기 시작하고, 아이스크림 한 카트 그리고 달콤한 빵 등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우리를 찾기 시작했고 "여러분의 미소가 좋아요."라고 말했지요. (음악)

이렇게 '황금이삭' 제과점이 태어났어요. 어떻게 해서 태어났냐고요? 직장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 태어났어요. 처음에 공식적으로 개업식을 했을 때 이 제과점은 5 평방 미터였어요. 지금은 이미 4 번의 수리를 거쳤고, "황금이삭" 2 호점도 생겼어요. (음악)

모니카 존고 (in portoghese): "황금이삭 2 호점"은 1 호점 다음으로 이 '마가리다 가든' 동네 주민들에게 봉사하기 위해 열었는데, 이 지역은 경제적으로 좀 더 어려운 지역이에요. (...) 이 가난한 동네는 건강과 환경 관련 구조도 없이 생겨났어요. (...) 이 곳의 우리 친구들은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알게 되면, 종종 자신들의 여분의 것이나 선물하고 싶은 의복, 식품들을 가져오는데, 우리가 도와주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환경)

아드리아나 발레 (in italiano): 22 명 직원 중 14 명은, 바로 이 마을 주변이나 이웃 마을 주민들이에요. (음악)

레티치아 데 올리베이라 모라이스 (in portoghese): 나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여기서 배운 모든 것들이 나를 도와 주었기 때문이에요. 나는 처음에 무척 수줍어했는데, 이제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내게 많은 도움을 주었어요. 이 곳은 단지 직장만이 아니라, 한 가족 이고, 내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준 복합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아드리아나 발레 (in italiano): 어려운 순간들도 많이 겪었어요. 각종 무장 폭행도 있었는데, 내 개인적으로도 목 뒤에 총이 겨누어진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도둑질 하는 젊은이에게 “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물었어요. “필요로 하니까!”라고 답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도 사랑했어요. 어느 순간 그는 총을 거두었고, 내가 밖으로 배웅을 했을 때 그는 내 얼굴을 마주보고 “왜 이렇게 하세요? 경찰에 나를 신고할거예요?”라고 했지요. 나는 “아니. 하지만 다시는 여기에 오지 않겠다고 약속해!”라고 했고, 그는 “여기는 다시는 오지 않겠다”고 했지요. (음악)

디레타 모우라 (Diletta) (in portoghese): 나는 고객들이 무엇보다도 미소 때문에 여기 다시 온다고 생각해요. 인류가 겪고 있는 어려움, 문제들로 가득한 이순간..... 고객들이 여기 와서 첫 번째로 받고 싶은 것은 미소일 것이에요. 그리고는 집으로 가져가는 빵과 모든 것을 구입하지요. (...) 하지만 무엇보다 미소를 발견하고자 하는데, 이 미소 뒤에는 여기 오는 개개인에게 내어 주고자 하는 하느님께 뿌리 내린 하나의 삶이 있기 때문일 것이에요.

(음악 - 자막: 마르코 알레오티 제작, 카를로 스감바토 촬영)

어거스틴: 가서 이 맛있는 것들을 모두 맛보고 싶지 않나요? 황금 이삭 식구들 감사드립니다!

5. 인도- 홍수 후의 케랄라 공동체

어거스틴: 이제 인도로 가 봅시다. 케랄라에서 엄청난 홍수가 난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 모두는 끔찍한 이미지들을 보았지만, 포콜라레 운동 공동체는 모든 것을 잃은 이들에게 함께 도움을 주고 동반해 주었습니다. 마르첼로와 안나벨이 이 영상을 보내주었습니다.

[in inglese]

스피커 (여): 인도 케랄라를 덮친 폭우로 400 명이 사망하고 만 명이 난민이 되어 인도 전역에 난민 캠프가 마련됐다. 기상 악화로 비행기와 다른 교통수단이 끊겨 제때 도움이 도착하기 어려웠다.

신토 쿠신잘릴 OCD 신부, '예수님을 위해' 법인 창설자 (in lingua locale doppiato in inglese): 홍수로 사람들은 집을 잃었고 농작물들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학습자료들을 잃었고 몇몇 아이들은 홍수에 휩쓸려 갔습니다. 약품들은 물에 떠다녔고, 식수, 식량, 의복들이 부족했으므로 그들은 하느님께 도움을 청했습니다.

스피커 (여): 포콜라레의 누군가가 얘기한 것처럼 “기도 외에도 작은 것일 지라도 무언가 구체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브리안 디 실바 몸바이 포콜라레 공동체 (in English): 그 순간 피해 현장에 계시던 신토 신부님께서 우리에게 전화하셔서 어떤 도움도 정말 필요하고 환영한다고 하셨습니다.

스피커 (여):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나누고자 하는 모든 것을 모으기 위해 포콜라레를 개방했다. 우리는 곡물, 옷, 담요 및 위생 용품 들을 모으는데 대한 사람들의 압도적인 반응에 놀랐고, 물품들을 신토 신부님과 끼아라 루체 바다노의 삶에서 영감을 얻은 ‘예수님을 위해’ 법인을 통해 전달했다. 포콜라레 운동의 젊은이들도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 방갈로르에서는 피자를 판매하고, 델리에서는 컵 케익을 그리고 몸바이에서는 바베큐를 판매하는 등 젠들은 케랄라의 공동체가 재건할 수 있도록 기금을 모으는데 즉각적으로 너그럽게 응답했다.

우리 중 몇몇은 현장에 갔으며, 음식, 의복 그리고 숙소 등의 도움을 제공했다. 거대한 구호 활동의 바다에 몇 방울의 사랑에 불과하지만, 케랄라 주민들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삶을 재건하고 하느님의 무한한 사랑을 믿는다. (음악)

어거스틴: 우리는 몇 시간 전에 지금 상황이 어떤지 보기 위해 신토 신부님과 통화했습니다.

신토 쿠신잘릴 OCD 신부, ‘예수님을 위해’ 법인 창설자: 이제 구조활동은 끝나고, 사람들은 들판을 떠나 자신들의 집으로 돌아 가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더 이상 거기서 살 수 없음을 보게 됩니다.

케랄라에 있는 포콜라레 공동체와 함께 부모들, 노인, 아이들과 더 어려운 사람들을 방문합니다.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 집을 다시 짓게 도와 주실 거지요?” 혹은 “교과서를 구해 주실 거지요?” 우리는 그들을 지원해주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들의 외침 안에서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보며 사랑과 일치로 답하고자 합니다..

어거스틴: 신토 신부님과 케랄라 공동체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6. 앙골라 – “작은 불꽃” 학교

파트리치아: 이제는 아프리카로 갑시다. 새가정 운동 활동의 도움으로 주위의 공동체들에서도 결실을 맺고 있는 작은 학교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내준 자료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in portoghese]

(음악, 환경, 자막: 무슬로 섬, 루안다, 앙골라)

클라우디오 도밍고스, 포콜라레 운동 술선자 (남): '작은 불꽃' 학교는 한 그룹이 이 무슬로 섬에 피정을 하러 오면서, 이 곳의 유아 사망률이 높은 것을 보게 되면서 태어났습니다. 포콜라레 운동과 관련된 사람들이 이 상태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느끼고, 앙골라의 공동체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것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문맹퇴치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새가정 운동 활동 기구의 도움으로 원거리 입양프로그램을 통해 학교를 계속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안토니오 귀심버, 관리자 (남): 현재 학교에는 약 160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교대로 아침에는 유치원 그리고 오후에는 방과후 학교를 엽니다. (음악)

알지라 사무코 - 교장 (여): 우리 학교에 바다 건너에서 교사가 온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슬로에 있는 젊은이들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우리에게 오는 젊은이들은 8 학년과 12 학년 사이이기 때문에, 나는 그들이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일합니다

바실리오 도스 산토스, 교사 (남): 무슬로에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좋았던 것은 심리적, 정서적, 정신 운동 면에서 우리 지역민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 카피톤, 교사 (여): 여기에는 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학교는 부모와 자녀들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알바로 칼레이아, 교사 (남):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아이들이 교육받고, 좋은 자녀로 자라고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토니오 귀심버, 관리자 (남): 우리에게는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도덕적 지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조언이 중요합니다.

알렉산드라 가미토, 경영위원회 위원 (여): 루안다 공동체의 몇몇은 학교에 자의로 일하러 옵니다. (...) 우리는 지역 기업가들이 작은 후원금을 통해 참여하도록 돕습니다. (...)

안토니오 귀심버, 관리자 (남): 이 곳에서 이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이 아이들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평화를 줍니다.

(음악, 풍경, - 자막: 그레텔 마린, 80 세대 프로덕션 공동 제작)

파트리치아: 앙골라의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직 긴장감이 돌고 있는 아프리카 카메룬의 폰템에서도 인사를 전해와서 읽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상태가 좋지 않아 연결은 할 수 없지만, 이 기회를 빌어 기도와 일치로 우리를 받쳐 주시는 커다란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7. 미국 – 인디애나주, 게리 – 도시를 색칠합시다

어거스틴: 이제는 미국 인디애나 주로 옮겨가 봅시다. 그 곳에서 일치를 위한 청소년 한 그룹이 이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in inglese]

(음악)

스피커 (여): 마이클 잭슨의 고향 인디애나 주의 게리는, 미국 철강 회사가 설립한 도시이다. 1970 년대와 1980 년대에는 한 산업 도시의 중심이 무너졌다. 그 곳을 벗어날 수 있던 사람들은 빠져 나가고, 나갈 수 없어서 남겨진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도시 중 하나이고, 가장 폭력적인 10 대 도시에 남겨졌다.

세 명의 젊은이: 2018! 우리 도시를 색칠합시다! 정말 기다려져요!

안나 파울라, 시카고의 포콜라리나: 게리는 미국 중서부 지역의 “우리 도시를 색칠합시다!” 행사의 4 번째 장소였지만, 처음으로 이 활동이 교구 청소년 부처와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졌습니다.

케빈 드리스콜, 인디애나 주 게리 교구 청소년 부 감독: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룹의 절반은 중서부 전역과 심지어 조지아 공화국에서도 온 일치된 세계를 위한 청소년들이었고, 나머지 절반은 7 개 교구의 청소년 들이었습니다. 결과와 작업도 훌륭했지만, 인간적인 측면에서 참가자들의 변화는 참으로 큰 결실이었습니다.

스피커 (남): 6 개주 100 개 도시에 우리는 온기와 사랑을 가져가고, 도시의 젓빛 모서리들을 채색하고자 했다. 그 지역의 13 개 기관과 함께 다양한 스물 다섯 곳에서 사회 봉사, 기도, 교회의 사회적 가르침 등의 봉사를 했다.

카렌 프리먼-월슨, 인디애나 주 게리 시장 (여): 저는 게리시 시장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미국 중서부 전역의 젊은이들을 맞이합니다. 저도 부모로서, 자녀들이 우리 지역 사회에서 자원 봉사하고 우리 공동체에게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부모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들을 잘 돌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덴젤(남자 아이): 우리는 많은 것을 했어요. 노숙자들에게 식사를 배식하고, 양로원을 방문해 함께 해드리고, 구체적인 도움을 드렸어요. 지금은 이 구역을 청소하고 있어요. 나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참으로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한, 매번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

모건 S., 오하이오의 일치를 위한 청소년 (소녀): 작은 행동이라도 전 세계의 변화를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은 아름다워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결국에는 도달할 수 있을 것이에요. 이 경험에 대해 참으로 감사해요. 나는 내가 얼마나 주었고 또 받았는지, 또 제 친구들과 그리고 결코 함께 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지만 나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이 안에서 어떻게 하느님을 알아 보았는지를 늘 기억할 것이에요.

스피커 (남): 처음 참석했던 청소년 중 많은 수가 그 기간이 하느님과 자신들의 공동체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해 주었고, 작은 활동도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자신들이 있는 곳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을 강화 시켜주었다고 말했다.

도널드 J. 하영, 인디애나 주 게리 교구 주교: 모든 부정적인 것들 가운데서, 100 명이 넘는 청소년들이 어른들과 함께, 자신들의 방학 중 며칠을 내어 주었다는 것은 우리 도시의 삶에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 그들 중 몇몇에게는 게리의 가난을 발견한 것이 눈을 열게 해주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무엇보다 친절하고 선을 베푸는 점에서 나를 놀라게 하는 젊은이들에게 감사 드립니다. (음악)

JJ 베리, 일치를 위한 청소년, 시카고: 무척 마음에 들었고, 즐거웠고, 우리가 자랑스러웠어요. 내가 예상했던 것과는 정 반대로 일반적인 모임이 아니었어요. 나는 친구들이 아니라 한 가족을 발견했어요. (음악)

8. 멕시코 – 함께 나누고, 재건하고, 다시 시작하기

파트리치아: ‘엘 디아만테’ 소도시가 위치한 멕시코의 푸에블라 주에 강진이 있는 지 1년이 지났습니다. 한 삶의 경험을 하기 위해 그 곳에서 살고 있는 여러 나라 출신의 젊은이들이 우리에게 비디오를 보내왔는데, 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진을 당한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해 얘기합니다.

[in spagnolo]

자막 (남): 2017 년 9 월 19 일, 멕시코는 역사 상 가장 강력한 지진 중 하나를 다시 체험했다. 진원지는 푸에블라의 포콜라레 "엘 디아 만테" 소도시가 있는 푸에블라 주인데, 20 명의 여러 나라 젊은이들이 1 년 동안 그 곳에서 살면서 공부했다.

샌디 – 과달라야라 (멕시코) (여): 진동을 느꼈을 때 우리는 교실에 있었는데, 매우 강했기 때문에 무척 놀랐어요. 우리는 가족들과 연락을 시도하며 별일 없는지 확인하고자 했지만 통신이 중단되었어요. 통신이 재개 되면서 뉴스를 듣고 여러 지역에 심각한 재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충격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돕고자 소도시 주민들과 함께 물품수집 센터를 마련했지만, 이미 가까운 곳에 많은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약 300 킬로미터 떨어진 콘틀라 시가 거의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음악)

홀리오 - 엘살바도르 (남): 콘틀라 시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지진의 심각성을 깨달을 수 있었어요. 집을 잃은 가족들에게는 참으로 큰 고통이었어요.

그들의 집의 잔해를 치우는 우리에게도 고통이었고, 그 것이 우리가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임을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작업의 피로감은 문제가 되지 않았고, 계속해서 돕고 싶을 뿐이었어요.

파올라 - 과달라야라 (멕시코 (여)): 우리는 되돌아 가야 할 필요를 느꼈지만, 교통 수단이 없었어요. 우리는 도움을 청하고자 함께 기도했고, 우리에게 트럭을 제공했던 분과 다시 얘기를 했는데 다음 날 우리를 데려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이 것은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 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어요.

홀리오 - 엘살바도르 (남): 이 곳에 남아서 집을 재건하는 것은 우리의 커다란, 메가-꿈이었어요. 그런데 불확실한 중에도 조금씩 실현되어 가고 있어요.

글로리아 - 콘틀라 (멕시코 (여)): 이 것은 우리 집인데 9 월 19 일에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도움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을 때, 그 그룹들 중 하나가 포콜라레의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들은 늘 우리와 함께 있었고, 이곳에 함께 있지 않을 때는 콘틀라가 어떻게 되어가는지, 콘틀라가 재건되고 있는지 묻곤 했어요. 아무튼 그들은 실질적으로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았어요.

제라르도신부 - 테오들랄코, 멕시코: 나는 제라르도 페레즈 알파로 신부인데, 가장 심한 피해를 입은 곳 중의 하나인 이 공동체의 본당신부입니다. 어느 일요일에 포콜라레 가족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게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아르헨티나, 독일, 콜롬비아 그리고 다른 나라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봉사자로서 본당 신부인 내게, 그 청소년들의 작업, 증거는 이 도움의 봉사를 계속하도록 나를 밀어 줍니다.

호아킨- 아르헨티나 (남): 우리는 이 곳 콘틀라에서 주민들과 만이 아니라 우리 사이에도 아주 깊은 관계를 맺었어요. 이 곳에 오는 것은 하나의 충격이었고, 자신의 아이디어와 생각을 한쪽으로 치워버리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콘틀라 주민들과의 관계도 많이 강해졌고 마지막에 왔을 때는 주민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델리나 - 콘틀라 (멕시코 (여)): 우리에게 주는 사랑, 특히 우리에게 마음을 주심에 감사 드려요.

글로리아 - 콘틀라 (멕시코): 우리는 콘틀라를 돕기 위해 누군가는 여행을 뒤로 미루거나 물건을 팔았다는 것을 압니다. 이 것이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 나가게 해줍니다. 그들이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을 알기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 줍니다. 감사합니다!

파트리치아: '엘 디아만테' 마리아폴리 소도시의 젊은이 여러분 감사합니다.

9. 동 아프리카 지역- 평화를 위한 스포츠

파트리치아: 지금 보게될 비디오의 주인공들은 청소년 들인데, 우리는 동 아프리카의 수단, 케냐 그리고 부룬디로 옮겨 가야 합니다. “평화를 위한 스포츠” 는 스포츠를 통해 많은 젊은이들을 평화의 사자로 양성하려는 활동입니다. 거기 참석한 청소년과 교사들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in inglese]

(음악)

엠마누엘 (남): 저는 평화와 일치를 배웠어요.

엘리사벳 (여): 저는 모두를 정직하게 대하는 것을 배웠어요.

린다 (여): 저는 모든 게임에서 한 가족처럼 지내는 것을 배웠어요. (환경)

스피커 (남): 엠마누엘, 엘리사벳 그리고 린다는 수단의 중심부 룬벵 교구의 두 학교에서 8월 말과 9월 초 사이에 열린 “평화를 위한 스포츠” 교육에 참여했다.

이 프로젝트는 그 전 달에 케냐와 브룬디에서도 열려 총 천 명이 넘는 6세에서 14세까지 아이들이 참여하게 했다.

목표는 인간 개발 지수 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으로 분류된 서 아프리카지역 청소년들을 그룹 스포츠, 게임 과 워크숍을 통해 평화의 문화로 양성하는 것이다.

(자막: 서 아프리카에서의 평화를 위한 스포츠)

알로이 헤켄 베르젤 박사, 평화를 위한 스포츠 기획자 (남) (in inglese): 평화를 위한 스포츠는 약 10년 전에 오스트리아에서 한 마리아폴리 중에 태어났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있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좀 폭력적이어서, 평화가 없었다고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지도자들과 함께 어떻게 해야 할지 자문해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실질적인 긍정적 형제애와 일치의 경험을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스피커 (남): 서 아프리카 전역의 150 명의 교육자와 고무자들의 양성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었다. 청소년들에게 그들은 평화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 스타일의 첫 번째 모델과 증거자였다.

크리스틴 오코 코루, 서 수단 고무자 (여): 저는 여러 활동들을 통해 원수를 사랑하고, 용기를 갖고,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과, 협동 정신을 배웠습니다.

알로이 헤켄 베르젤 박사, 평화를 위한 스포츠 기획자 (남) (in inglese): (...) 우리에게는 모든 문화, 종교에서 발견하는 “네게 해 주기 바라는 것을 다른 이에게 해 주어라”는 황금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조디 베닐데 (부룬디) (여) (nella lingua locale): 우리는 스포츠를 통해 사랑하는 것, 다른 이를 돕고, 서로 놀리지 않고 사랑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제키엘, 서 수단 고무자 (남) (in inglese): 저는 변화에 기대를 거는데 우리 나라에는 정말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르파니아 쿤디, 케냐 유네스코 국가위원 (여) (in inglese): 스포츠는 단지 관계를 맺는 것뿐만 아니라 젊은 인재 육성을 위한 도구, 평화의 도구로 여겨야 합니다. (...) 그렇게 할 때 지역적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건설될 것입니다. (음악과 환경)

어거스틴: 이 청소년들 정말 멋지지 않아요?

10. 콜롬비아 – 모두를 위한 경제: 개발을 위한 다각화

어거스틴: 이제 아메리카 대륙으로 돌아옵니다. 모든 것이 지역민들에게 일자리를 주고자 하는 에미로 신부님의 바람에서부터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 'ACEDECO PADEVI' 기업이 생겨났는데, '모든 이를 위한 경제'에서 영감을 얻은 한 공동체적 사업체로 이제 그 지역에는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in spagnolo]

(환경 - 자막: 아드리아나 마리아 아벨라네다과 로렌조 조바네티 제작)

에미로 바레라 로자 스신부 ACEDECO PADEVI 창설자 (spagnolo): 나는 1994 년도에 로피아노에서 살았는데 그 것은 나의 생을 완전히 바꾼 하나의 학교였습니다. 그 곳에서 처음으로 모든 이를 위한 경제에 대해 들었습니다. 내가 이 곳에 돌아 왔을 때 나는 사용되지 않은 이 광범위한 땅을 보았고 그 주위에는 아무 것도 지니지 못하고, 일터 조차 없는 수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까운 한 그룹의 사람들에게 나의 불편한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나는 로피아노에서 살았던 것을 실천하고 싶었는데, 물질적 재산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것이고 만일 서로 나눈다면 불어 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음악 - 자막: 티마나, 후일라 - 콜롬비아)

타이틀: 콜롬비아 모든 이를 위한 경제: 개발을 위한 다각화)

마리아 글로리아 페나 고스 산체스 (여), ACEDECO PADEVI 법정 대리인 (spagnolo): 우리는 커피로 연명했고 커피 수확이 끝나면 일이 없었고, 일할 땅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땅을 내어 주신 에미로 신부님의 너그러움 덕분에 우리는 닭을 키우고 양파를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기억하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생활말씀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 사이에 이견이 있었지만 때맞춰 생활 말씀이 도착했고, 지금 우리의 이 기업을 유지시킬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5 년간 아무도 이윤을 청하는 이 없이 재배하고 수확하여, 그 이윤을 이 기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음악)

제시드 칠리토 페나고스 (남), ACEDECO PADEVI 코디네이트 (spagnolo): 우리는 절대 빈곤 속에서 살았고, 우리 집은 찰흙 위에 골판지 지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커피를 수확하러 갈 때면,

내가 지금 일하는 것과는 다르게 일하고 싶기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여 함께 일하던 친구들이 나를 놀리곤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는 대부분의 땅 소유주인 두 사람만이 일거리를 주었습니다. 그들은 임금은 적게 지불하면서 일꾼들을 착취했습니다. 나는 항상 이런 상황에서 살았지만 그 때는 더 이상 이 곳에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제게, “너는 공부를 했고 컴퓨터도 사용할 줄 아니까 이 프로젝트를 좀 도와 달라”고 청했습니다. 하지만, 단지 다변화 한다는 조건으로 그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음악)

이제 우리는 커피, 닭과 돼지 사육, 물고기 양식과 유기농 야채 텃밭을 가지고 있으며, 제품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환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데 생산 과정에서 생성된 잔류 물을 최대한 활용하여 재사용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음악)

우리가 차이점과 어려움을 결합시키는 만큼, 개발과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생산적, 효과적, 사회적으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굳이 큰 자본이나 큰 지식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에미로 신부가 얘기하듯이 대주주, 숨어 계신 주주, 우리가 보지 못하더라도 늘 우리를 돌보는 파트너에게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리아 글로리아 페나 고스 산체스 (여), ACEDECO PADEVI 법정 대리인 (spagnolo): 지금 우리가 보는 것과 같은 결실을 거두기 위해, 우리는 미래를 위한 요구들을 통합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에미로 바레라 로자 스신부 ACEDECO PADEVI 창설자 (spagnolo): 우리는 빵과 물고기를 불리시는 주님의 현존을 체험합니다. 나는 복음말씀이 실현됨을 봅니다. 우리가 주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면, 주님께서 백배의 상을 주십니다. 우리가 땅과 사람들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훨씬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영원한 삶을 주실 것입니다.

(음악과 자막: ACEDECO PADEVI: 모든 이를 위한 경제 협회 생활 말씀 - 후일라 - 콜롬비아)

11. 끼아라 루빅: 구별 하지 않고 모두 사랑하기

어거스틴: 정말 얼마나 감사해야하고 또 기도해야 할지요. 우리 큰 가족 안에는 얼마나 많은 아름다운 소식들과 도전이 존재하는지요, 그렇지요?

파트리치아: 그렇습니다. 참으로 많은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사랑은 늘 빛을 가져오고 구별 하지 않고 모든 이에게 다가가게 합니다.

그 것이 끼아라가 2002년에 한 무슬림 그룹에게 얘기하면서 한 말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말을 다시 들어보고자 합니다.

끼아라 루빅: [...]

운동의 시작 무렵, 전쟁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가난한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는데, 우리에게 이는 학교였습니다! 우리는 초자연적 의미에서 사랑하는 데 익숙하지 않았고, 우리의 관심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에게만 이르렀습니다.

반면에 이제는 도시의 모든 가난한 이들에게 우리의 성의를 다했습니다. 그들을 우리의 집에 오게 하여 우리의 식탁에 앉도록 했습니다. 길에서 그들을 만나면 그들이 얼마나 환영 받고 있는지를 느끼게끔 했습니다. 참으로 황량한 오두막에 살고 있는 그들을 방문했고 또한 의약품으로 보살피고자 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난한 이들이 사랑의 대상이었는데, 그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통해 “너희가 내 형제들인 이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고 하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느님의 섭리, 식료품, 옷과 의약품이 넘치도록 도달하는 것을 보는 것은 장관이었습니다.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우리처럼 살고 있었을 때, 어느 순간, 주님께서서는 가난한 이들과 모두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가난한 이가 되도록 청하시는 듯 했습니다.

그 날은 “보따리 싸기”라고 불렸던 것을 했던 날이었습니다. 각자는 첫 포콜라레의 방 한 가운데에 여분의 것이라고 여긴 외투, 장갑, 모자를 놓았는데, 모피 외투도 하나 있었던 것이 기억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서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 한 영혼이 되어,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했으며, 그들 가운데에는 궁핍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아름다운 페이지는 우리를 매혹시켰습니다. (...)

그렇게 “재산의 공유”가 태어났고, 그 후, 지금의 모든 이를 위한 경제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었는데, 이 모임 중에 이에 대해 얘기할 것입니다.(...)

우리 포콜라리노들은 가난한 이들을 향한 이 사랑으로 인해 -사랑은 늘 빛을 가져다 주기에- 우리의 마음이 오로지 그들만을 향해 있을 것이 아니라,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하느님께서 의로운 이와 불의한 이에게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비를 내려주시듯이 구별하지 않으며 모두를 사랑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호감이 가는 이와 호감이 가지 않는 이, 흥한 이와 아름다운 이, 동족과 외국인, 백인 흑인 황색인, 유럽인과 아메리칸인, 아프리카인과 아시아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무슬림과 힌두인 사이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구별도 알지 못합니다. (...)

개별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웃을 사랑하고, 한 민족 전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로부터 전적인 사고방식의 변화가 태어나고, 혁신이 태어납니다. 만일 모두가 이렇게 한다면 이 땅은 이미 하늘이 될 것입니다. [...]

어거스틴: 끼아라의 말을 듣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12. 카스텔간돌포에서 한 마리아 보체 (엠마우스)의 인사

어거스틴: 이제 카스텔간돌포와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엔리코 연결됐나요?

엔리코: 네, 카스텔간돌포입니다. 엠마우스와 함께 있는데, 엠마우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아름답고, 마음을 움직이는 스토리들을 들었고 끼아라의 말은 단순하지만 복음으로부터 오는 참으로 강한 말씀이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모든 것들의 빛 안에서 끼아라의 말이 어떻게 들렸습니까?

엠마우스: 아직도 끼아라의 말은 늘 제게 감동을 주는데, 마치 끼아라가 이 합동전화를 우리와 함께 보고 끝으로 우리에게 이 합동전화를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는지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기 때문입니다. 정말 한 조각의 땅이 이미 하늘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듣고 또 지금 이 내용을 듣고 있는 여러분을 대표하는 지역 대표들이 이 곳에 있어서 여러분의 삶을 가져왔기 때문에, 우리가 요사이 나누었던 모든 것, 여러분이 얘기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이 세상에서 행하는 선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게 큰 기쁨과, 커다란 희망을 주는데, 이는 실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합동전화에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험담을 들었습니까? 아마 10 개 일 것인데, 전 세계의 필요 앞에 10 개는 아무 것도 아니지요? 하지만 이 10 개의 필요를 보고 무언가를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 함께 모이고, 어떤 구체적인 것을 할 수 있을지 물었고, 이를 위해 일했습니다.

만일 이 열명이 일을 했고, 우리가 요사이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했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없어서 못 들었지만 다른 이들이 일을 했다면 희망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끼아라와 함께 하늘로 변화시킨 땅이 있고, 예수님께서 지상 천국을 가져오기 위해 오시어, 우리의 구체적인 활동을 통해 이를 실현하고자 하신다면, 희망을 갖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나는 바라고, 믿는데 내 말을 듣는 여러분도 희망을 가지세요. 이 희망을 지니고 모두 함께 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엔리코: Grazie, Emmaus. (박수) 그러면 이 말과 더불어 그리고 엠마우스의 것이고 우리 모두의 것인 희망을 지니고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에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어거스틴과 파트리치아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Ciao a tutti! (박수)

13. 결론

어거스틴: 엠마우스, 엔리코 감사드립니다.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인사드립니다.

파트리치아: 이번 합동전화는 끝났고, 다음 약속은 11월 17일 이태리 시간 오후 8시입니다.

그럼. 어거스틴 이제 인사드려야지요!

어거스틴: 여러분께 인사드리고, 여러분의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앞으로 청소년 축제를 할 마리아폴리 리아 소도시 젊은이들에게 인사드리고, 쿠바 식구에게도 특별한 인사 전합니다
Ciao!

파트리치아: Ciao a tutti!